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의 특성 연구

권 정 숙

경남대학교 패션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Athleisure of Characteristics in Modern Fashion

Jungsook Kwon

Prof., Dept. of Fashion and Clothing of Kyungnam University
(2016. 10. 6 접수; 2016. 11. 21 수정; 2016. 11. 24 채택)

Abstract

“Athleisure” indicates a new fashion style which takes advantage of the merits of both sportswear and outdoor clothing. This fashion style produces clothing we can wear very conveniently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This paper, first, surveyed the concept of athleisure and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its appearance in modern fashion, and then, analyzed the growing processes and tendencies of athleisure in various fields of fashion. The three typical characteristics of athleisure can be summarized as Non-boundary, Functionality, and Sensualit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has provided some theoretical evidences for the athleisure which is expanding broadly but vaguely as megatrends.

Key Words: Athleisure(애슬레저), Sports Wear(스포츠웨어), Non-boundary(비경계성), Functionality(기능성), Sensuality(관능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애슬레저는 ‘운동’이라는 애슬레틱(athletic)과 ‘여가’를 뜻하는 레저(leisure)의 합성어로 스포츠 웨어와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패션 트렌드를 의미한다. 이것은 활동성과 기능성을 가진 스포츠 웨어와 아웃도어웨어의 장점을 취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입고 활동할 수 있는 패션 스타일을 칭한다. 애슬레저는 생활 수준 향상과 라이

프 스타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태동하였으며 스포츠 웨어에 근간을 두고 점차 메가트렌드로 확대(패션채널, 2015)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의류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현실에서 애슬레저는 전체 의류 시장에서 그 비중을 확대하며 그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애슬레저는 현대 패션의 기본아이템으로 성장한 청바지 시장점유율을 위협하며 의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Anne D'Innocenzio, 2014). 전세계 패션 시장에서 애슬레저 전문 브랜드가 새롭게 출범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의 브랜드들이 애슬레

저 카테고리를 브랜드에 추가하거나 상품물량을 확대하는 경향이 패션산업의 트렌드처럼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애슬레저(Athleisure)라는 단어가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2015) 사전에 공식 기재되기까지 했다. NIKE, North Face, Louis Vuitton, Victoria Secret, GAP, Tory Burch, H&M 등 스포츠, 프리미엄, 아웃도어, 이너웨어, SPA 브랜드 구분없이 애슬레저 카테고리를 브랜드에 신설하거나 상품구성비를 확대하고 있다(국제섬유신문, 2016). 국내 역시 기존 스포츠 브랜드 뿐 아니라 전문 브랜드가 가세했고 아웃도어 브랜드도 스포츠 라인을 새롭게 론칭하였으며 여기에 패션 브랜드와 이너웨어, 골프웨어 업체들까지 경쟁적으로 애슬레저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포츠웨어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웨어에 관련한 연구는 엄준희(2003)의 액티브 스포츠 웨어의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와 이의정과 백천희(2008)의 스포츠웨어의 소재 경향에 관한 연구가 있다. 최경희(2004)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스포티즘의 유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정해나(2009)는 스포츠 웨어의 디자인적 특성이 일상복에 반영된 스포티브 룩과 스포츠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세대인 스포슈머(Sporsumer)를 위한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주미영과 조주연(2006)은 스포티브 스타일 패션디자인의 세부장식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영민(2011)은 스포티즘 관련 개념을 고찰하고 Sports-inspired Fashion 의 디자인 특성 및 패션 테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구민정(2007)은 애슬레티시즘의 개념을 고찰하고 현대 패션에서 애슬레티시즘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디자인 유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달아(2016)는 애슬레저 웨어의 산업현황과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 바이크 스포츠 웨어 제품 개발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포츠 웨어 연장선상에서 등장한 애슬레저의 개념 역시 스포츠웨어에서 변화된 제3의 트렌드 현상으로 파악하고 표현 경향, 미적 특성, 마케팅, 소재 위주로 고찰되었다. 그러나 스포츠, 캐주얼, 아웃도어, 이너웨어의 영역간의 구분없이 공통된 관심 키워드인 애슬레저로 수렴하게 된 이론적 배경과 애슬레저에 표현된 미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의 개념과 사회·문화적 환경 및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패션분야에서 애슬레저 스타일이 생성되는 과정과 경향을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환경과 이론적 배경에서 추출한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애슬레저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메가트렌드로 확산되는 애슬레저의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등장 배경과 생성 과정을 고찰하고 애슬레저가 지향하는 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패션의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트렌드로서의 애슬레저의 발전가능성과 유용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최근 아웃도어 열풍의 흐름이 스포츠로 전환되어 패션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애슬레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문화적 등장 배경 환경 및 영향을 준 이론적 배경 등의 문헌고찰과 스포츠웨어 분류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애슬레저의 생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애슬레저가 트렌드 주류로 등장하여 사전에 등재되는 2014년 이후의 패션들을 중심으로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캐주얼웨어를 중심으로 애슬레저가 표현된 개념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간된 섬유패션 전문지와 패션관련 신문, 스포츠 브랜드 홈페이지, 컬렉션에 발표된 디자이너들의 작품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적 연구와 내용 분석 방법을 병용하였다. 애슬레저의 미적 특성이 표현된 작품분석의 연구 방법으로는 2014년 이후 “애슬레저”를 주제로 작성된 패션관련 신문기사(국제섬유신문, 패션채널, 패션어패럴)에서 언급된 룩과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홈페이지, 컬렉션에 발표된 디자이너들의 작품, 인터넷 자료(www.style.com, www.fashionnetkorea.co.kr)를 중심으로 애슬레저 룩으로 보이는 사진 118장을 추출하였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애슬레저의 미적 특성이 부각되는 대표 사진들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대 패션의 큰 흐름이 되고 있는 애슬레저의 패션 현상을 이해하고 패션을 통해 반영되는 사회적 가치관과 특징적인 미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본 문

1. 애슬레저의 개념

스포츠 및 아웃도어 웨어는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에 대한 관심증대로 짧은 시간에 급 성장하였으며 과대 공급현상으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 스포츠 웨어는 해당 운동에 최적화되어 그 영역을 확대하여 성장하였고 국내에서는 IMF를 계기로 아웃도어 붐이 열풍처럼 번져나가 일상복의 영역까지 진출하였다.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과 운동 참여도와 관심이 증가하여 '애슬레저(Athleisure, 애슬레틱과 레저의 합성어)'가 패션업계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애슬레저는 스포티즘을 기반으로 운동복과 캐주얼한 패션 아이템이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이다. 베이직한 레깅스(leggings)와 스포티한 재킷, 트레이닝화 차림을 기본으로 스포티한 아이템 혹은 베이직한 캐주얼 아이템에 하이힐이나 포멀한 재킷을 연출 하는 등 다양한 스타일의 애슬레저 룩으로 표현된다.

운동복과 아웃도어 소재의 기능성과 활동성 및 착용 시의 쾌적성은 애슬레저의 우수한 효율적 특성이면서 다른 패션트렌드와의 차별성을 부여하는 특성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스포츠 웨어와 아웃도어 웨어의 착용 증가로 인한 신소재 생산 기술력의 향상과 패션 업체들의 기능성 관련 마케팅 홍보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기능성 인지도 증가 및 중요한 관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스포츠 웨어와 아웃도어 웨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기능적 색채 특성과는 차별성을 부여하여 일상에서도 거부감을 주지 않는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색채를 사용하였다.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적이고 세련된 색상과 이미지를 표명하며 있으며, 주로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과 절

제된 장식을 활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닌 운동의 생활화, 생활 속의 운동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의하여 애슬레저가 생활 속 패션 스타일로 진화하여 스포츠 의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이코노믹리뷰, 2015). 운동을 위한 스포츠 웨어일 뿐 아니라 출·퇴근을 위한 일상복으로서의 스포츠 웨어, 생활 속의 운동을 가능케 하는 부담 없는 스타일의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비자의 열망이 애슬레저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애슬레저가 메가트렌드로 부상하자 스포츠 업계뿐 아니라 아웃도어, SPA 의류, 언더웨어 업계까지 애슬레저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배출되는 애슬레저 스타일은 브랜드의 수만급, 착장하는 경우의 수만급 애슬레저 스타일은 다양하다. 사실 애슬레저는 이름처럼 모호한 영역이다. 운동과 레저의 결합은 활동적인 운동과 여유로운 휴식을 위한 레저의 영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애슬레저는 동적인 움직임과 정적인 휴식의 이중(異種)결합을 의미하며, 규정화된 표준 스타일로 단정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런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의 선택과 의류 착장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될 뿐이다.

2. 사회·문화적 환경

1) 라이프스타일 변화

과학과 산업의 발전, 사회 변화에 따라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여가의 가치 있는 활용과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나타났으며 스포츠는 유행을 선도하는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영향으로 성장하였다. 주5일제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여가 개념이 대두되고 정부의 국민복지정책에 의한 스포츠 장려 사업과 과학기술 발달에 의해 스포츠 패션과 산업의 발달과 확산을 촉진하는 결과물을 가져왔다.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패션과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메가트렌드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부터 스포츠와 레저 활동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간과할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또한 관련 소비지출 증가와

함께 관련 비즈니스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고부가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기능성과 편안함, 실용성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어우러져 패션을 주도하는 트렌드를 구성하거나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의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성장하였다.

스포츠 활동 중 등산과 레저는 단순한 운동의 개념을 넘어서 아웃도어와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로 확산되면서 2000년대 패션 산업을 주도하는 주제로 발전하였다.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것이다. 오늘날의 스포츠 웨어는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운동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상복으로 널리 착용되고 있으며, 단순히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패션분야에 영감을 제공하며, 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새로움을 창출해 나가는 중요한 패션테마로 작용하고 있다.

2) 루키즘과 웰루킹

웰빙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지향은 스포츠와 자연스레 결합되어 건강하고 탄력 있는 신체가 중요한 관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신체적 외모를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을 지니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루키즘(lookism)은 근래에 이르러 더욱 현저히 부각되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 다이어트, 몸매 관리의 행동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외양 또는 겉모습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특정 부류 집단을 달리 인식하거나 비(非)호감을 지니며 나아가 편견 또는 차별함을 의미한다. 루키즘은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외모를 중시하고 겉모습에 의존해 평가하는 사회적 관행이 두드러지는 사회적 문제점과 외모 비판, 맹목적 다이어트, 성형중독 등의 개인적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루키즘의 부정적인 문제인 '외형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까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장점을 부각시킨 웰루킹(WellLooking)이 등장하였다. 웰루킹은 웰빙에 미의식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웰빙이 삶의 내면 만족에 중심을 둔다면 웰

루킹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타인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한다. 웰루킹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웰루킹족(族)'이라고 한다(두산백과, 2016). 루키즘이 성형, 다이어트에 맹신하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낳았던 반면, 웰루킹은 각자의 개성을 살려 외모를 가꾸고, 철저한 자기 관리와 운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분위기는 패션에까지 영향을 끼쳐 몸매를 드러내는 옷이나 피트니스룩(fitness look)이 유행하였다. 이들은 스포츠웨어를 운동 시에만 입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스포츠웨어에 감각적인 스타일을 요구하고 일상복으로의 활용을 확대시켰다. 일상복으로의 전환경향은 단순한 편의추구를 위한 불성실한 취향의 일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생활 속에 침투된 중요한 트렌드로 성장한 지표의 의미함과 동시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긍정적 행위로 간주하는 인식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스포츠를 즐기는 행위나 스포츠를 위한 패션자체도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나아가 노출되기를 희망하는 과시의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거리를 활보하는 애슬레저 룩 착용자들, 레깅스에 운동화, 코트를 입고 출근하는 모습들이 오피스 룩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었을 과거와 달리 바쁜 시간을 쪼개어 운동을 하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웰루킹 능력자라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3) 과학기술의 발달

첨단 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겸비한 신소재의 개발 노력은 섬유 기술의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개발 등을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고기능성 섬유와 인체공학적 기술의 발전이 스포츠웨어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 시킨 것은 액티브 스포츠의 기록이나 선수의 기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기능성 소재들의 개발을 시작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착용자들의 요구인 쾌적감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비 시장의 주축으로 확대되었다. 신소재

의 개발을 촉진시킨 것이 바로 스포츠였고 신소재의 개발에 의해 더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스포츠용 소재들이 개발되었다. 그로 인해 스포츠 기능 향상과 스포츠 웨어의 폭넓은 개발이 가능해진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신소재의 발전에 힘입어 운동 시의 보호나 수치 측정 등의 의료적 목적을 지닌 의복 또는 신체적 쾌적감을 증진시키고 신체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활동성을 위해 인체공학적인 유기적 형태의 디자인(하지수, 2000)의 개발이 가능하였다. 또한 새로운 소재와 의류 산업기술의 개발에 의해 다양한 기능성과 새로운 형태미를 패션에 표현하고자 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디자인 영감과 도구를 제공하였다. 그 예로 1960년대에 스판덱스 개발로 인해 신축성을 부여한 소재의 개발은 마찰력을 줄이고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영복을 시작으로 기록 경신용 운동복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며 인체에 밀착되는 옷의 형태 및 아이템 개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이후 우주복 개발로 등장한 고어텍스, 정전기 방지, 극세사 섬유, 고탄성, 방균 및 방취섬유, 방수 및 방수소재, 잠수복 소재로 개발된 네오프렌, 단열소재, 냉감소재, 발열소재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센서 칩을 탑재한 광섬유로 직조된 스마트 의류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된 다양한 소재들이 스포츠웨어로 확대되고 있다. 혁신적인 첨단 소재를 이용한 스포츠웨어는 스포츠웨어와 일상복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애슬레저의 트렌드로 확산되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3. 이론적 배경

1) 애슬레티시즘과 스포티즘

애슬레티시즘(Athleticism)의 사전(2014)적 의미는 Athletic에서 파생된 용어로, ‘운동경기(스포츠)열’, ‘집중적 운동경기’를 뜻하는 Athletics와 주의(主義)를 뜻하는 ism(정열적)인 활동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 합성어로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깨닫고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삼은 영국 스포츠 사상을 애슬레티시즘이라고 한다. 애슬레티시즘은 각종 팀 스포츠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고, 스포츠의 조직

화와 발달에 촉매적 작용을 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교육 및 여가문화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 영국사회의 스포츠 문화 확산에 자양분 역할을 한 사조로서 오늘날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영국 스포츠는 이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남성다운 특성(Manly Trait), 강건한 인격 특성(Muscular Characteristics) 함양을 지향했던 영국 스포츠 교육운동의 목적의 개념은 미국 스포츠에 영향을 강하게 끼쳤다.

애슬레티시즘은 스포츠게임을 통하여 신체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더불어 도덕적 용기, 충성심, 협동심, 명령과 복종, 공정한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덕목을 추구 하였으며, 나아가 이는 운동경기 애호 예찬 숭배주의로 발전하였다(구민정, 2007).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운동부족, 과소비 등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 직면시, 애슬레티시즘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덕목들은 건강한 신체와 가치지향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에게 긍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의 국제적인 경기에서 자국의 승리를 기원하며 동일한 색상이나 디자인의 옷을 맞춰 입고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은 이러한 운동경기 애호 예찬 숭배주의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당시 하나로 뭉쳐서 응원하고 우리 팀의 승리를 열망했던 우리나라의 붉은 악마는 애슬레티시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될 수 있다.

스포티즘의 본격적인 시작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앞서 언급한 애슬레티시즘과 유사한 의미이긴 하지만, 발생배경과 시작된 국가가 달라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전반기의 서구사회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영향과 산업화로 인한 근대화의 변혁을 맞이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남성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들의 직업관의 변화, 사회적 지위의 향상, 경제적 권리 획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여성들은 점차 스포츠와 댄스를 즐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들은 생활양식, 소비형태, 가치관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성들에게 그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길고 우아한 드레스 대신 활동성과 기능이 부여된 남성화 경향 추구, 스포티하고 casual한 복장을 선택하게 하는 복식문화의 변화로 이어졌다.

1930년대 스포츠웨어는 기본적으로 활동의 자유, 간소함과 편안함이라는 원칙에 따라 제작되었다. 특히 스포츠웨어 역사는 단순히 스타일의 연속이나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화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 패션 산업의 역사이며 나아가 서구 패션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의 노동 중심적 가치관과는 달리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스포츠와 여가 활동을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 사게 되었다(이영민, 1993). 스포츠는 수단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으로 인간표현의 한 형태이고 역사적으로는 신체적인 놀이에서 비롯하였으며,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여가활동으로 그 개념이 정립된다(한동철, 2002). 스포츠는 현대사회와 인간의 삶을 융합하게 이어주고 정치, 경제, 예술, 영화, 광고, 디자인 등 문화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19세기 이래 지금까지 패션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제 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건강 증진 수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로 진화하여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 유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스포츠 웨어는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뛰어넘어 패션 분야에서 다양한 영감을 제공하고 다양한 패션 주제와 어우러져 널리 착용되어지는 주요 패션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2)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에슬레저는 기존에 전혀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발명품 같은 트렌드가 아니라 아웃도어 웨어와 스포츠 웨어의 경계를 허물고 캐주얼웨어와 일상복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나타난 진화의 산물로 파악될 수 있다. 이것은 개성·자율성·다양성·대중성을 중시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 사고의 이론적 근거는 고정적인 체계로 유지된 이분법적 논리와 패러다임의 경계를 파괴하고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가능케 하는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간행위와 그 산물들을 설명하려는 사고유형 및

인식을 가르키는 이론으로 모더니즘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예술문화운동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원류로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철학적 개념이다(권정숙, 2005). 포스트구조주의는 프랑스 사상이자 자크 데리다의 '해체이론(Deconstruction Theory)'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데리다를 위시한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구조주의가 찾는 '근원'과 '중심'이 사실은 구조의 밖에 존재한다는 역설을 지적하며, 이분법적 서열의 해체(deconstruction)와 탈중심(decentering) 이론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구조주의자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근원이 사실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며 불인정하다고 지적하며, 상대주의와 불확실성을 포용한다(김성곤 편, 1988). 서구의 형이상학적 진리에 대한 전제와 믿음을 비판하는 해체 이론은 기본적인 이항대립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사고의 경계를 파괴하였다. 가치, 사고, 문화의 경계성은 다중성으로 전이되며 대립된 양면성의 가치서 해체되거나 혼합되고 변질되어 새로운 의미들을 생산하였다(권정숙, 2005). 오늘날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의 구분을 깨고 생성된 에슬레저라는 개념은, 타 영역간의 경계를 해체하고 기존의 이분법적 구분을 탈피하여 탈중심성, 비경계성으로 열린 사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포스트구조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인간공학과 스포츠과학

에슬레저가 스포츠웨어를 원류로 하는 특성과 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성과 관련하여 살펴 보아야 할 학문 분야는 인간공학과 스포츠과학이다. 인간공학이란 인간과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이다. 인간공학은 인간의 기계화가 아닌 인간을 위한 공학(design for human)을 말한다. 즉,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도구, 기계, 시스템, 과업, 직무, 환경을 설계하는 데 응용함으로써 인간이 생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물건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두산백과, 2016). 이 분야는 종합과학(interdisciplinary science)으로서 휴먼 팩터(human factors)나 에르고노믹

스(ergonomics)라는 명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학문명 백과, 2016). 에르고노믹스에 기초한 디자인이 '에르고디자인(ergodesign)'이다. 에르고디자인은 기능성이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의 체격, 운동, 감각, 인지 등의 모든 기능이나 행동 특성 또는 능력에 맞는 기계나 가구를 만드는 디자인, 또는 그런 특성의 디자인 요소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인간 공학은 인간 위주의 철학을 깔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생리학, 심리학, 해부학, 동작 연구, 생산 공학 등 넓은 분야를 종합하여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한 기계나 기구를 만들어내자는 학문으로, 항공, 자동차, 의복에 이르기까지 그 분야는 광범위하다(김현주, 2013).

인간을 고려한 기계, 기술의 관계를 연구한 학문인 인간 공학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학문 분야는 스포츠 과학이다. 애슬레저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인 스포츠, 인간, 도구(도구적 의미로서의 운동복)의 관계에서 스포츠를 중심으로 물질과학·생물과학·사회과학 등 여러 과학의 전문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스포츠 과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포츠 과학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발전한 새로운 과학으로 올림픽의 정상급 선수의 관리나 지도 등과 관련해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때로는 교육이나 문화와 분리되어 경기력 향상을 주안으로 한 과학이라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스포츠를 문화적·사회적 현상이라 해석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건의나 체육을 포함한 폭넓은 과학으로서 물질 과학(physical science), 생물 과학(biological science), 사회 과학(social science), 인문 과학(humanities)에 걸치는 기초적·응용적 여러 전문 학문으로 구성된 종합 과학인 것이다(체육학 대사전, 2000).

양동주(2010)와 김현주(2013)의 연구에서 인간 공학 디자인 특성은 안전(Safety), 편안함(Comfort), 사용의 용이성(Ease of use), 성능(performance), 미학(Aesthetics)으로 추출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충실히 적용되었으며 인체의 움직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바디컨서스형 스포츠 웨어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스포츠웨어는 동일한 환경조건 및 운동 강도 하에서도 의복의 디자인, 맞춤새, 패턴 등에 따라 인체생리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활한 동작 가능성과 인체 조절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인체공학과 스포츠 과학에 기인하여 활동성과 기능성을 증진시키는 스포츠웨어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심미적 만족감을 고취할 수 있는 애슬레저의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하여 고기능성 소재의 사용뿐만 아니라 의복구성 형태 및 디테일을 활용하는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다.

4. 패션과 애슬레저

애슬레저가 메가트렌드로 부상하자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애슬레저 제품 라인을 출시하거나 상품 군을 구성하여 아이템들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애슬레저는 이름처럼 모호하고 복잡한 의미를 지니는 영역이다. 애슬레저는 스포츠웨어의 큰 범주 내에 속하지만, 어떤 특정한 아이템과 규정할 수 있는 표준 스타일을 가지는 룩 혹은 일시적인 유행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애슬레저는 기존의 스포츠웨어를 근간으로 발전된 패션 현상으로, 애슬레저 스타일에 맞는 창작법이 지금도 꾸준히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 유기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애슬레저는 입는 방법과 착용하는 아이템의 선택 영역에 있어서, 기존의 착용 방식의 규칙을 벗어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의 효율성과 개인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닌다. 따라서 애슬레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슬레저의 발생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패션 내에서의 스포츠웨어 관련된 개념 변화들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고찰이 요구된다.

스포츠웨어 관련 패션용어는 스포츠 룩,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 액티브(Active) 스포츠 웨어, 퍼포먼스(Performance) 웨어, 캐포츠(Caports) 등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체된 패션시장에서 복종 분야별 경계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것이 '애슬레저'이다. 스포티즘 경향이 메가트렌드로 확산되어 캐주얼, 아웃도어, 이너웨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애슬레저라는 공통 인자로 수렴되었다. 애슬레저라는 표준화된 스타일 대신, 혼합되어 나타나는 룩의 특성들은 스포츠 웨어와 일상복, 캐주얼 웨어와 스포츠 웨어 혹은 이너웨어,

아웃도어와 스포츠 웨어, 이너웨어와 아웃도어 혹은 스포츠 웨어 등 여러 분야의 절충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스포츠웨어 관련 발달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들을 고찰하고 애슬레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포츠 웨어와 애슬레저

스포티즘(sportism)의 사전적 의미는 스포츠 룩이나 스포티브룩 따위를 소재로 삼아 평상복을 만들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두산백과, 2016). 스포티즘을 애슬레틱 스포츠 룩(athletic sports look)이라고도 한다. 스포티브(sportive)는 스포츠의 형용사로서 사전적 의미는 '명량한, 스포츠에 의한, 스포츠 적인'이라는 뜻이며 의복 디자인에 표현된 스포츠적 분위기나 느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동아프라임영한사전). 스키복, 조깅 슈트, 테니스복, 다운 베스트, 다운재킷, 아노락 등이 일반적이다. 스포츠 웨어는 운동복을 의미하며, 모든 스포츠나 스포츠 경기의 관중용으로 디자인된 복장의 총칭을 말한다(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스포츠웨어는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와 스포츠 관람을 위한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spectator sportswear)'로 구분된다. 액티브 스포츠 웨어는 일련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의복을 모두 포함하나, 오늘날에는 낚시나 등산 그리고 그 외의 레저를 위한 의복을 따로 분류하여 인도어 웨어(Indoor wear), 아웃도어 웨어(Outdoor wear)나 레저 웨어(Leisure wear)라 칭하고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정정미, 1996). 그러나 21세기를 전후하여 패션 전반에 걸쳐 스포티즘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캐주얼 웨어와 스포츠웨어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1980년대 다양한 양식과 장르가 혼재하는 특성을 지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패션에 있어서 다양한 트렌드와 콘셉트를 가진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스포츠 웨어 범주에서도 개별적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웨어에 근간을 두고 패션성을 부여한 다양한 스타일들이 결합하거나 진화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 캐포츠룩과 애슬레저

캐주얼과 스포츠의 합성어로 '캐포츠'룩 또는 'SLS(Sports Life Style)웨어'는 스포츠 의류로서의 기능성과 활동성, 캐주얼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에 고감도 캐릭터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표현하는 패션이다. 캐포츠룩과 유사한 용어로는 '소프트(Soft) 스포츠 룩'이 있다. 소프트 스포츠 룩이란 스포츠와 시티 캐주얼 웨어의 중간에 위치하는 주목받는 새로운 스포츠 웨어로 뉴스포티즘으로 불린다. 스포티 룩에 과감한 커팅과 진보한 하이테크적 요소를 가미하고, 새틴 소재와 슬릿 장식, 레이스 장식, 네온 컬러 등 다양한 변형을 더해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실용적인 캐주얼 룩을 바탕으로 스포츠에 한정된 운동복이 아니라 일상복으로 가능한 기능성과 패션성을 겸비한 캐포츠룩의 트렌드가 급성장하였다. 캐포츠 룩의 확산 경향은 애슬레저 트렌드로 확산되어 골프, 조깅, 킥보드처럼 특별한 운동복을 따로 갈아입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최근 레포츠 선호 현상에 기인하며 일상 생활에서도 기능성과 활동성 외에도 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션성을 갖춘 장점을 지니고 있다.

3) 아웃도어, 아우트로웨어와 애슬레저

아웃도어 웨어는 야외에서 즐기는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위해 착용되는 의복을 의미(김찬주, 노미경, 2009)하며 아우트로(Outro)는 아웃도어와 메트로(Metro)를 합성한 용어로서 등산복처럼 고기능성 레저용으로 제작된 멋을 가미한 시티 웨어(City Wear)를 의미한다(김인혜, 하지수, 2012).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에 묶여 있는 회사원들의 경우 퇴근 이후나 주말 여가에 회사 생활과 연결하는 레저를 즐기기 위해 출퇴근 복장도 캐주얼의류와 레저의류를 접목한 실용성 위주의 아우트로 패션을 선호한다. 현재 아웃도어의 메인 타겟이 40-60대 중장년층이지만 등산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중에 착용이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아우트로 룩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애슬레저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즉, 기능성에 패션성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패션성을 중심으로 기능성을 첨가하는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의미

한다. 아우트로패션은 도시적인 세련미와 고급스러움을 키워드로 지향한다.

4) 애슬레킹과 애슬레저

애슬레킹은 운동 경기(athletic)와 트레킹(trekking)의 합성어다. 애슬레저 트렌드를 제품에 반영하면서도 아웃도어 고유의 기능성을 놓치지 않은 것을 애슬레킹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애슬레저가 인도어에 특화된 활동이라면 애슬레킹은 아웃도어에 특화된 아이템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패션채널, 2016)이다. 애슬레킹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도심 속 운동을 즐기는 것은 물론, 트레킹이나 등산 등의 아웃도어 활동에도 적합한 멀티 룩이다. 확장성이 넓어 인도어와 아웃도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애슬레저가 패션성을 중시한 실내 레저용 스포츠 웨어의 특성을 지니는 반면, 애슬레킹은 체형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스트레치성을 높여 활동성을 극대화시킨 스포츠웨어의 기능성과 아울러 경량성, 내구성, 투습성 및 방수성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아웃도어의 장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점을 지닌다.

5) 이너웨어와 애슬레저

이너웨어 분야에서도 애슬레저 트렌드의 영향으로 스포츠 라인을 확대하여 출시하고 있다. 운동 시에도 쾌적하고 편안하며 몸매를 아름답게 연출해주는 이너웨어의 장점을 강조하여 스포츠 브라, 컴프레션 웨어, 수영복 등의 개발을 확대하였다. 애슬레저의 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성 이너웨어는 몸에 피트 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봉제선을 없애고 속건성, 향균, 방취 등의 기능성을 강조하였다. 체형보완의 장점을 지닌 이너웨어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너웨어를 독립된 스포츠웨어로 착용하며 애슬레저의 기능성과 스타일을 확대하고 있다.

Ⅲ. 애슬레저의 미적 특성

애슬레저는 패션 산업에서의 일시적인 유행

아이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패션 산업의 진행과정에서 진화한 복식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존의 절대적 논리와 인식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열린 해석과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과 포스트구조주의 패러다임은 패션 영역의 구분의 경계를 허물고 애슬레저라는 공통된 주제로 수렴되어 나타났으며, 상황에 맞게 의복을 착용하는 T.P.O (Time, Place, Occasion)의 경계를 해체하였다. 즉, 이것은 스포츠 웨어, 아웃도어 웨어, 캐주얼웨어의 복종간 경계를 해체하고 옷 한 벌로 레저, 스포츠, 데이웨어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애슬레저 스타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 공학과 및 스포츠 공학은 새로운 기능성을 겸비한 신소재와 디자인 개발로 애슬레저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신소재의 개발 노력은 섬유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스포츠의 기능 향상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발전은 애슬레저의 필수적 특성인 기능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애슬레저의 기능성은 신체적 쾌적성과 신체적 효율성 및 단순하고 세련된 심미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웰빙 트렌드와 애슬레티시즘 및 스포티즘의 확산은 스포츠와 레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인 확산 경향을 고취하였으며 나아가 스포츠 웨어와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루키즘과 웰루킹은 신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의식을 고취하여 스포츠를 하는 행위와 패션자체도 외부에 노출되기를 희망하는 과시의 의도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기에 스포츠를 위한 애슬레저 웨어는 신체의 활동성뿐만 아니라 더욱 날씬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심미성이 요구된다. 애슬레저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심미성은 화려한 장식이나 과장이 아닌 순수한 육체미의 인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 직접적인 신체의 노출보다는 애슬레저 웨어 착용을 통한 건강한 육체미의 부각과 탄력적인 근육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관능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애슬레저의 미적 특성을 비경계성, 기능성, 관능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은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에서 애슬레저의

〈그림 1〉 애슬레저의 사회·문화적 & 이론적 배경에서 미적 특성 도출 과정

사회·문화적 & 이론적 배경	주요 개념	미적 특성	표현 특성
포스트모더니즘&포스트구조주의	경계해체 열린해석	비경계성	영역경계파괴 TPO의 파괴
과학기술의 발달 인간공학&스포츠공학	기능성 효율성 활동성	기능성	고기능성 다기능성
루키즘&웰루킹	바디컨셔스 노출과 강조	관능성	과시성 육체미
라이프 스타일 변화 애슬레티시즘과 스포티즘	애슬레저 확산의 배경		

미적 특성 도출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1. 비경계성

서구의 형이상학적 진리에 대한 전제와 믿음을 비판하는 해체 이론은 모든 지식과 사고의 경계를 허물었다. 포스트구조주의의 해체전략은 고정된 진리와 중심을 거부하는 비경계성(Non-boundary)은 대립된 양면성의 경계를 해체하거나 혼합하여 새로운 의미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경계적 복식의 특성은 남성/여성, 분명한/모호한, 긴 것/짧은 것, 곁/속, 포멀/스포츠, 여름/겨울, 이너웨어/아웃웨어, 활동/휴식 등의 기본적인 대립관계 이외에도 상황별(T.P.O), 스포츠/캐주얼, 페미닌/스포츠, 아웃도어/스포츠, 이너웨어/캐주얼, 일상복/운동복 등 영역의 구분 경계를 초월한 일탈과 재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 가능성과 자율성을 확대시킨다. 스포츠 브랜드에서의 디자이너와의 협업 사례는 서로간의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영역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생성하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스포츠 브랜드 NIKE는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SCAI와의 협업을 통하여 기존의 기능성에 차별적인 스타일을 재창조하였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혼합, 여성스러운 플리츠 디테일의 스포티한 해석과 메시 소재의 강조 등을 통하여 편하게 입는 스포츠 룩의 한계를 넘어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다. ADIDAS는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라프 시몬스(Raf Simons),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 릭 오웬스(Rick

Owens)에 이어 알렌산더 왕(Alexander Wang) 등 독특한 개성을 지닌 디자이너과들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하여 심미적인 감성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부여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스포츠패션은 성의 경계를 파괴하는 유니섹스적 특성이 강한 영역 중 하나이며, 트레이닝 팬츠, 레깅스, 운동화, 트레이닝 점퍼 등의 스포츠 웨어는 남녀공용으로 착용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그림 2〉는 로맨티시즘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플라워 프린트의 쉬폰 스커트와 대립적인 패션 주제인 스포티즘 아이템 집업(Zip up), 스웨트셔츠(Sweat shirt)를 매치하였다. Chloé의 16 S/S의 작품으로 비경계성에 의한 패션 주제의 이질적인 결합의 특성을 나타내는 패션이다. 〈그림 3〉은 착장 방식에 대한 일탈의 사례이다. 이너웨어를 입고 겹옷을 입는 일반적인 착장방식을 벗어나 수영복 팬츠를 하의로 착장하고 그 위에 스커트를 덧입었다. 스커트는 하의를 가려주는 기존의 오버스커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팬츠의 일부를 노출하여 더욱 이질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준다. 화려한 패턴의 블라우스 위에 색상과 재질이 대조적인 오버 브래지어를 착용하였다. 이너웨어로 인식되는 브래지어의 의미보다는 피트니스, 요가 등 인 도어 스포츠에서 착용하는 스포츠 탑의 개념을 가진 상의 착용이 인상적인 PRADA의 16 S/S 의상이다. 〈그림 4〉는 포멀한 슬랙스와 재킷에 아웃도어 웨어의 백팩에서 사용되는 스트랩과 금속버클 잠금 장치를 디테일로 표현한 Marc by Marc Jacobs 15 S/S 의상이다. 팬츠는 캐주얼한 조퍼드 팬츠 회사에 출



〈그림 2〉 Chloé

(출처: www.style.com)



〈그림 3〉 PRADA

(출처: www.style.com)



〈그림 4〉 Marc by Marc Jacobs

(출처: www.elle.com)

근하는 오피스 룩의 슈트 차림에 의외의 등산용 백팩을 착용한 듯 한 아이러니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의상이다.

2. 기능성

애슬레저에서 보이는 기능성은 신소재뿐 아니라 인체공학적 형태 구성과 첨단 의 공제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디테일 및 기능적 트리밍을 도입하고 있다. 기능성과 쾌적성 및 활동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적인 목적 이외에도 장식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심미성과 직접적인 기능성 활용 유무와는 무관한 심리적 만족감을 목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우주의 극한 상황을 견디기 위하여 개발된 고어텍스(Gore Tex) 소재의 경우, 처음 척박한 환경의 등산이나 익스트림 스포츠 웨어로 개발되었으나 점차 대중화되어 스포츠 웨어와 캐주얼 웨어에서도 사용이 확대되었다.

고기능성은 스포츠웨어에 아웃도어와 캐주얼이 접목되는 애슬레저 패션의 가장 차별화된 특징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기능성에 심미성을 접목하여 일상복으로의 활용가치를 확대한 실용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즉, 애슬레저 패션은 스포츠 및 레저 복에서 일상복으로의 상황 변형이 가능한 효율성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의류의 경량성과 휴대용이성(Packable), 그리고 추위, 열기 등의 환경요소로부터 보호해주는 다기능적 특성을

지닌다.

스포츠와 인간공학기술의 만남으로 탄생한 기능성 의류는 전문선수들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를 시작으로, 현재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확대되었다. 다양한 기능성들은 애슬레저 웨어의 차별화된 특성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와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제품들은 기능성 특징부터 지향하는 목적까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신체 근육을 지지하거나 보정하는 역할, 땀의 흡수 및 건조 측면이 우수한 역할, 외부의 특별한 자극이나 환경에서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 동작의 편이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역할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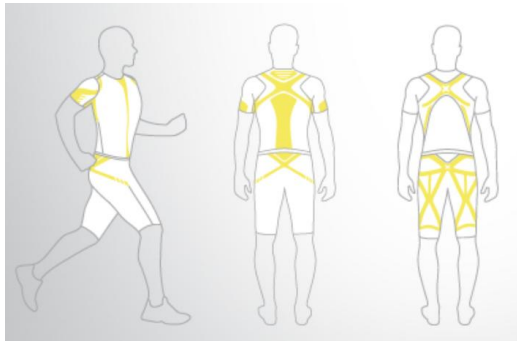
아디다스 테크핏(adidas Techfit)(그림 5)은 압박소재(Compression Fabric)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근육의 떨림을 감소시키고 자주 쓰는 근육을 보호하며 필요한 근육을 강하게 잡아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운동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며 운동의 정도에 따라 초보자, 미디엄, 격렬한 운동에 적합한 파워랩(그림 6)으로 나뉜다.

나이키는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들과 과학자 및 생리학자들의 피드백과 나이키 스포츠 연구소(Nike Sports Research Lab)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키 프로 콰터 리커버리 하이퍼타이트'(Nike Pro Combat Recovery Hyper tight) 제품을 개발하였다. 제품의 핵심 기술은 다리를 따라 내려가는 격자무늬의 촘촘한 정도에 따라 압박의 강도가

달라지는 차별 압박(Graduated Compression) 디자인을 통해 하체 부위별로 각기 다른 압박을 가한다. 운동 피로도와 부위에 따른 압박 강도 조절은 근육의 붓기를 빠른 속도로 가라앉혀 근피로도 회복에 도움을 주는 가능성을 가진다.

NIKE는 2015년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디자이너 조안나 슈나이더(Johanna Schneider)와의 협업을 통하여 여성의 인체와 움직임에 집중한 'Modularity for the body in motion' 컬렉션(그림 7)을 구성하였다. 여성의 신체와 오가닉 구조를 결합시켜 탄생 되었으며, 역동적인 신체움직임에도 유연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운

동 단계에 따라 입는 아이템이 다른 모듈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좌측 3번째 사진은 소매 없는 케이프, 이것은 4번째 사진처럼 허리에 묶은 스커트로 변형 착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착용자의 활동 수준과 상황에 따라 옷의 볼륨이나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림 7>의 좌측 켈로트 쇼츠는 단독으로 입거나 레깅스 위에 착용하여 레어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기능을 가진 아이템이다. <그림 8>은 T by Alexander Wang 15 S/S 제품으로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인도어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레깅스 팬츠와 스포츠 브라탑 위에 5부 길이의 스포티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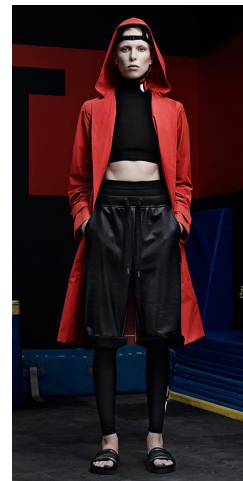
<그림 5> adidas Techfit
(출처: <http://www.adidas.co.kr>)



<그림 6> adidas Techfit
(출처: <http://www.it.co.kr>)



<그림 7> Modularity for the body in motion
(출처: www.nike.com)



<그림 8> T by AlexanderWang
(출처: www.Vogue.com)

와 후드가 달린 캐주얼한 코트를 매치하였다. 마치 레깅스와 스포츠 브라 탑을 입고 열심히 운동하다가 외출하기 위해 겹옷을 레이어드한 애슬레저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실제 운동 여부와 상관없이 레깅스와 반바지를 겹쳐 입었으며, 운동복에서 일상복으로 혹은 일상복에서 운동복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효율성을 표현한 것이다.

3. 관능성 (sensuality)

현대 사회에서 웰빙 열풍과 외모지상주의의 대두로 외모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웰루킹과 젊음을 지향하는 트렌드의 확산으로 건강한 육체미와 자신감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얼마 전까지 스키니진이 어울리는 깡마른 체형이 대세였던 반면, 움직임에 따라 근육이 드러나는 탄탄한 보디라인을 중시하는 건강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신체의 노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미의식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스포츠 웨어뿐만 아니라 여성복 전반에 걸쳐 신체를 의식하고 노출하는 관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관능성의 사전적 의미는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하여 감각적인, 색시함을 의미한다(네이버 사전, 2016).

에로티시즘과 유사한 의미로 인간의 본능적 욕망인 성이 감정적 측면인데 반해 심리적 기반에서 성의 객관적 측면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 종교, 예술 등에 깊은 관련성을 가지며 이상미, 숭고미, 퇴폐미 등 시대마다 다양한 개념과 의미로 변화되어 왔다. 관능성의 표현은 인종, 지역,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오랜 세월동안 남성에게 종속되어 온 여성의 관능성이 중요한 복식미의 내면적 요인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코르셋이나 하이힐과 같이 복식 역사를 통하여 관능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신체를 훼손하거나 억압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애슬레저의 미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관능성은 건강한 미의식과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관능성이 타인 혹은 이성을 의식한 종속적인 관능성의 특성을 지니는 반면, 자신의 인체를 바라보며 느끼는 자아만족과 건강한 신체를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가치

를 표출하는 자신감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바디컨셔스란 영어로 ‘신체를 의식하다’라는 의미(패션전문자료사전, 1997)로 신체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실루엣이 사용되고, 닥트나 구성선 등의 구성에 의해 신체 라인을 살리는 슬림 실루엣과는 차별화되며, 스트레치 소재를 전제로 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는 1950년 라이크라의 개발과 함께 속도 향상이 목적인 전문스포츠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여 인체 밀착되게 디자인하여 활동성이 원활하고 공기 저항감을 최소화하여 속도 향상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대표적 분야는 육상복, 체조복, 사이클웨어, 수영복, 스쿠버 등이다. 동일한 신체와 환경조건, 운동 강도 하에서도 의복구성 패턴, 소재, 맞음새 등에 따라 인체생리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운동 동작과 신체 조건에 맞는 소재 선택과 의복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신축성 외에도 통기성, 흡수성, 속건성, 발한성, 보온성, 투습방수성, 발수성 등 인체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성들이 요구된다.

스포츠웨어에서 비롯된 바디컨셔스 아이템들은 신체의 활동성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패션의 최소 아이템 속옷류의 단순 형태 및 피부에 가까운 밀착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그 자체의 노출성 및 밀착성에 의해 시각적인 관능성이 필수불가결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애슬레저 웨어에서 표현되는 관능미는 바디컨셔스 룩에 의한 간접적 노출과 신체부위의 직접적 노출로 구분된다. <그림 9>는 Paco Rabanne 15 S/S 제품으로 애슬레저의 대표 아이템인 레깅스와 캐주얼한 보머 재킷(bomber jacket)이 조화를 이룬 애슬레저의 대표적인 착장 스타일이다. 스트레치성 소재로 구성된 레깅스는 자연스러운 하체 라인을 강조하는 간접적 노출로 관능미를 표현하고 있다. 애슬레저 웨어에서 레깅스는 신체의 인간공학적 구조를 고려하여 구성된 입체 패턴과 장식을 배제한 단순성을 특성으로 한다. 특징적인 디테일은 부위별로 압박강도가 다른 기능성 소재들의 삽입과 기능적 절개 및 닥트, 근육의 움직임을 고려한 특수 테이핑 접합, 이음새 부분을 봉제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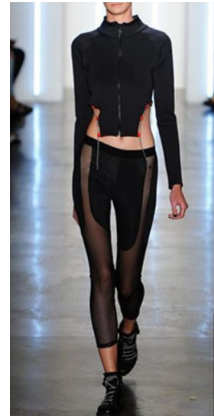
〈그림 9〉 Paco Rabanne

(출처: www.style.com)



〈그림 10〉 Lacoste

(출처: www.style.com)



〈그림 11〉 Chromat

(출처: www.fashionnetkorea.com)

테이핑 처리를 하는 심실링(Seam sealing)기법, 신축성 직물에 봉제대신 열과 압력으로 접착하는 웰딩 필름(Welding Film) 처리 기법, 스트레칭 소재의 접합을 위한 오드 램프 스티치(4-needle-coverstitch) 등의 디테일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10〉은 실용적이고 스포티한 Lacoste 16 S/S 레저 웨어이다. 브라 탑을 이너웨어로 착용하여 젊고 건강한 복근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연출하였다. 〈그림 11〉은 Chromat의 16 S/S 제품으로 잡업 스타일의 스트레치 트레이닝 상의와 메시 소재가 인체 외측에 배색되어 있다. 메시 소재의 간접적 비침 현상에 의하여 인체의 관능미를 강조하였다.

IV. 결론

애슬레저는 하나의 패션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형성 배경과 의미를 지닌 패션 주제이며, 사회, 문화, 과학적 변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화해가는 현대패션의 커다란 흐름으로 파악될 수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의 개념과 등장 배경을 고찰하고, 패션의 다양한 분야에서 애슬레저 스타일이 표현되는 발생과정을 분석하고 사회·문화적 등장 배경과 이론적 배경에서 추출한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애슬레저 패션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애슬레저는 아웃도어 웨어와 스포츠 웨어의 경계를 허물고 캐주얼웨어와 일상복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나타난 비경계성의 미적 특성을 지닌 패션 스타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 사고의 이론적 근거는 고정적인 체계로 이어져온 이분법적 논리와 패러다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의미 해석과 융합을 가능케 하는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애슬레저는 스포티즘과 애슬레티시즘의 영향으로 스포츠웨어의 변화 과정 속에 등장하였으며, 애슬레저의 필수요소인 기능성은 과학기술의 발전, 인간공학과 스포츠과학에 기인한 것이다. 기능성은 스포츠웨어에 아웃도어와 캐주얼이 접목되는 애슬레저 패션의 가장 차별화된 특징이며 실용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스포츠 및 레저 복에서 일상복으로의 상황 변형이 가능한 효율성과 경량성, 휴대용이성, 그리고 추위, 열기 등의 환경요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체 보호성 등의 다기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애슬레저의 관능성은 여가와 스포츠, 건강미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웰투킹에 의한 신체를 의식하는 미의식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애슬레저의 관능성은 성적본능에 기인한 성적매력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성과는 구별된다. 신체의 활동성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패션의 최소 아이템인 속옷류의 단순 형

태 및 피부에 가까운 밀착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각적인 관능성이 필수불가결한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애슬레저의 미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관능성은 건강한 미의식과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애슬레저의 관능성은 심미성을 추구하는 패션의 특성에 의해 애슬레저 트렌드론 대중으로 확산시키는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논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 이상과 같이 애슬레저는 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 웨어가 지니는 기능성뿐만 아니라 캐주얼웨어가 지니는 효율성과 데이 웨어로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심미성을 지니고 있다. 애슬레저는 현대패션을 주도하고 새로운 패션 창조의 영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다. 건강한 삶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확대 경향과 첨단 산업들의 발달과 적용이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더욱 다양하고 스마트한 애슬레저 패션 스타일의 진화가 예상된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애슬레저가 발전하게 된 배경과 이론 중심의 고찰을 진행한 결과, 현재 패션 산업 내에서 스포츠나 레저 관련 브랜드 내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애슬레저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양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스포츠 웨어와의 차별성을 구별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애슬레저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사례 중심의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다. 향후 진행할 후속 연구의 방향은 패션 영역 내에서 진행되는 애슬레저의 유형을 분류하고 디자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민정.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시즘의 미적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숙. (2005). 복식디자인에 표현된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특성 분석(1).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6), 585-593.
- 김성곤. (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김인혜, 하지수. (2012). 국내 아웃도어웨어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2(1), 93-109.
- 김찬주, 노미경. (2009). 아웃도어 라이프 활성화를 위한 페이스 커버 개발 연구. *복식*, 59(1), 47-59.
- 김현주. (2013). *에르고노믹스 패션 디자인 연구-바디 컨셔스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네이버 두산백과. 자료검색일: 16.08.03,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5957&cid=40942&categoryId=32335>
- 네이버 학문명 백과. 자료검색일: 2016.08.03.,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5322&cid=44414&categoryId=44414>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지). (2014). *프라이밍한사전 (5판)*. 서울: 동아출판사.
- 세계 10대 명품 시장은.... 패션어패럴비즈니스뉴스. (2016.09.13.) 자료검색일: 2016.09.14., 자료출처: http://www.ktradenews.com/2016/07/10_9.html
- 스포츠과학. (2000). 체육학대사전. 민중서관. 자료검색일 2016.09.01.,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0945&cid=42876&categoryId=42876>
- 애슬레저 패션 '홍수' 경쟁 심화. 국제섬유신문. (2016.04.18.). 자료검색일: 2016.06.02., 자료출처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48>
- 애슬레저, 스포츠 의류가 일상을 넘본다. 이코노믹리뷰. (2015.12.28.) 자료검색일: 2016.09.01., 자료출처: <http://www.econovill.com/news>
- 애슬레저가 아니라 애슬레깅이다. 패션채널. (2016.02.26.). 자료검색일 2016.05.20.,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fcblog/220638401904>
- 양동주. (2010). *Economics & Design*. 서울: 민영사.
- 엄준희. (2003).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 웨어의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달아. (2016). *도심형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애슬레저 마이크 스포츠 웨어 제품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민. (2011). *현대 Sports-inspired Fashion의 디자인 특성 및 패션 테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의정, 백천의. (2008). 최근 스포츠웨어의 소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3), 47-59.
- 정해나. (2009). *스프슈머 세대를 위한 스포티브 룩*

- 디자인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정미. (1996).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스타일에 관한 연구-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미영, 조주연. (2006). 스포티브 스타일 패션디자인의 세부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2(2), 86-95.
- 최경희.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유형과 미적 특성. *패션비즈니스학회지*, 8(1), 91-106.
- 패션 시장에 부는 애슬레저 바람, 패션채널. (2015.09.01.) 자료검색일: 2016.05.21., 자료출처:<http://www.fashionchannel.co.kr>
- 패션계 신 다크호스 애슬레저 전문 브랜드. 패션서울. (2016.05.02.). 자료검색일: 2016.07.02., 자료출처:<http://www.fashionseoul.com/?p=111331>
- 패션전문자료사전. (1997).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패션전문자료편찬위원회. (1997). *패션전문자료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 한국패션브랜드연감 2014. (2014). *어패럴뉴스사* 편집부.
- 한동철. (2002). *등산의 세계*. 서울: 조선일보사.
- Anne D'Innocenzio. (2014.09.06.). Jeans face uncertain future amid yoga wear rage. USA Today. 자료검색일: 2016.06.18., 자료출처:<http://www.usatoday.com>
- Athleisure, Merriam-Webster. (2015.05.18.) 자료검색일: 2016.06.02., 자료출처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athleisure>
- Milnes, H. (2016.05.22.). Designer sneakers and \$200 leggings: How luxury stepped into the rise of athleisure. Digiday. 자료검색일: 2016.06.21, 자료출처: <http://digiday.com>
- www.adidas.com
- www.elle.com
- www.fashionnetkorea.com
- www.it.co.kr
- www.nike.com
- www.Vogue.com